

새 희망·새 미션...100년 되돌아보고 100년을 그린다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 3박 4일 일정 돌입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는 지난 100년의 활동을 공유·성찰하고, 미래 100년의 좌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다. 미래 100년의 좌표는 '여수선언'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주제별 분과토의와 종합 포럼을 개최한다. 여수 대회의 특징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교류와 소통을 추구하는 점이다. 도을 김용욱 교수와 헤민 스님의 강연이 대표적이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회의도시 여수'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방안과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10월 개최하는 여수 세계한상대회 예행 연습의 역할도 있다.

◇새로운 100년 좌표 '여수선언' = 창립 97주년을 맞은 국제와이즈멘은 이번 여수 세계대회에서 새로운 100년의 좌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6개 분과로 나눠 주제별 분과토의를 진행하고, 이를 총화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분과는 청소년육성, 지역사회봉사, 확장교육, 와이즈 멘트, YMCA와 파트너십, 국제의료봉사 등이다. 분과별 주제에 맞게 지난 100년의 와이즈멘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지향점을 찾게 된다.

포럼을 통해 총화된 결과물로 '여수선언'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듬어 오는 12일 폐막식에서 국제와이즈멘의 새로운 미션을 제시하는 '여수선언문'을 발표한다. '여수선언'에는 새 희망·새 사람·새 미션으로 국제와이즈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좌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종교 초월 강연·문화행사도 소통 = 종교를 초월한 강연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여수 세계대회의 특징이다. 와이즈멘은 기독교 성향이 있지만 종교를 초월한 봉사와 더 나은 세계로의 전진이라는 와이즈멘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벤트다.

3000여명 6개 분과 토의·포럼
종교·문화 초월한 교류·소통
김용욱 교수·헤민 스님 강연
25국 청소년 유스대회도 열려

도을 김용욱 한신대 석좌교수는 9일 개회식에서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변화적인 삶'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공생애'를 화두로 던졌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타성'이고,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승보살정신의 상실'이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방성의 상실과 교조화'라고 꼬집었다. 국제와이즈멘은 이런 슬막하는 분위기에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봉사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와이즈멘이여! 일어나라. 친교와 교양과 봉사를 위해 일어나라"고 촉구했다.

헤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도 같은 맥락이다. 헤민 스님은 10일 오후 1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스타 강사 조승연 작가와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의 인문학 강연도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동력 유스대회 동시 개최 = 미래 와이즈멘을 이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인 '유스대회'가 여수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유스대회에는 세계 지구촌재가 추천한 25개국 청소년(15~30세) 12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9개 세션으로 나눠 세미나와 토론, 봉사 활동을 한다. 세계의 동화책을 번역해 라오스 YMCA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남부원 아태YMCA연맹 사무총장 등 강의도 듣는다. 청소년들은 장애인과 레이바이크 타기, 삼해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포츠 등 지역봉사 활동도 펼친다.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 개막일인 9일 전세계 와이즈멘들의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형물 'Yes, We can change'의 제막행사가 이순신 공원에서 열렸다. 문상봉 와이즈멘 국제총재, 권오봉 여수시장 등 아시아, 유럽, 북,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에서 여수를 찾은 관계자들이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수=김진수 기자 jeans@

이번 여수 대회에서는 청소년 시각으로 세계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경주 유스대회 준비위원장장은 "각국 청소년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문화교류이고 즐거움"이라며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와이즈멘의 이념과 목적을 청소년 눈높이에서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정욱 기자 jwpark@

"와이즈멘과 여수의 만남, 단순하고 임팩트 있게 형상화"

■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 기념탑 제작 이상욱 조각가

"Y men(와이즈멘)과 Yeosu(여수)의 만남, 이들의 사랑과 우정은 단순·명료하면서도 임팩트있게 형상화했습니다."

제73차 국제와이즈멘 여수 세계대회를 기념하는 상징 조형물 'Y'가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됐다. 탁 트인 공원 광장에 세워진 'Y'는 가로 408cm, 세로 123cm, 높이 693cm 규모로, 와이즈멘의 위상 및 이념을 널리 알리고 와이즈멘과 여수의 우정과 사랑을 기리는 기념탑이다.

기념탑은 국제와이즈멘을 구성하는 세계 8개 지역(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남극·북극)을 상징하는 각기 다른 8가지 석재(미천석·버너·포천석·버너·마천석·황등석·보성·그린석 등)를 활용해 여수와 와이즈멘, YMCA를 형상화했다. 기념탑은 와이즈멘 회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건립했다.

작품은 광주미술협회장을 지낸 이상욱



조각가가 말했다. 나 작가는 가고시마 교류전, 동화 100주년 기념전 등에 참여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립 5·18민주묘지 의 5·18추모탑, 광주학생운동기념탑(조형물), 의재 허백련 선생 흉상, 오지호 선생 흉상 등이 있다. /여수=박정욱 기자 jwpark@

보수정권 10년간 끊긴 예산지원 토대 다시 마련

정부 2차 문화중심도시 수정계획 문화도시 조성·산업 육성 등 4대 역점사업 추진 탄력 받을 듯

9일 정부가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광주를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의 무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정부의 수정계획 발표에 따라 이제는 예술·관광 상품 등 소프트웨어를 집중 육성하게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즌2'를 맞게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참여 정부의 대표적인 광주 지역사업으로 2004~2023년 20년 동안 총 5조2912억원(국비 2조7679억원·지방비 7896억원·민자 1조7337억)을 투입해 광주를 문화수도이자 아시아의 문화발진소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 기간의 4분의 3이 지난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성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은 2015년 건립한 것 외에 미미하다.

집행된 예산도 전체 예산의 25.4%인 1조3462억원(국비 1조1987억원·지방비 935억원·민자 540억원)에 불과하며, 집행 예산의 77.0%인 1조376억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사용됐다.

이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이 미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투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데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비 투입(계획대비 11.8%)도 부족했고 당달아 민자유치(계획대비 3.1%)도 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지난 10여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음섭 광주시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제2차 수정계획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계획안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4대 역점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